

2017. 03. 20. ~ 2017. 03. 26. 주간

129
VOL

전남농업정보

- 기상전망**
-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유기농 홍차 『호주 첫 수출』 개시
 - 전남산 천연정유 수출 업무협약 체결로 해외 수출 길 나서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올해는 밥맛 좋은 친환경 벼 심어보세요!
 -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방제가 필수
- 정책동향**
 - 전남도, 시 피해농가에 특별 운영자금 긴급 지원
 - 전남산 농·수·특산물 판매 카카오톡 나선다
- 사업신청 및 홍보**
 - 2016년산 쥐눈이콩 등 우량종자 자금 신청하세요
 - 해외굿팜 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향상 워크숍 개최



목차 및 요약

-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14~19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4mm)보다 적겠음
-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전남 유기농 홍차 『호주 첫 수출』 개시
 - ▶ 전남산 천연정유 수출 업무협약 체결로 해외 수출 길 나서
 - ▶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수입 없어
-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5**
 - ▶ 비파잎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 정보제공
 - ▶ 벼메뚜기 실내사육에 알맞은 온도와 일장
 - ▶ 기계 수확 시 최적 찻잎 생육시기
 - ▶ 참다래 신품종 『해금』 골드키위 수익성



- ▶ 전남농기원, 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 ▶ 올해는 밥맛 좋은 친환경 벼 심어보세요!
- ▶ 우리 지역에 찰떡궁합인 찰벼
- ▶ 천궁·당귀 재배 전에 안전 재배지인지 확인하세요
- ▶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방제가 필수
- ▶ 양파 노균병 제때 방제해야 풍년 농사 가능
- ▶ 생산비 줄이는 한우 방목 기술은?
- ▶ 돼지 생산성 높이는 봄철 온도·습도 관리요령

6. 정책 동향 31

- ▶ 전남도, AI 피해농가에 특별 운영자금 긴급 지원
- ▶ 전남산 농·수·특산물 판매 카카오가 나선다
- ▶ 내년부터 연간 460억원 규모 (쌀 5만톤) 식량원조 추진키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4

- ▶ 나주시,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 ▶ 광양시, 매실 등 지역 특산물 맞춤형 통계 개발에 나서
- ▶ 곡성군, 소(通)동(行)락(樂) 곡성 귀농학교 구들농기 교육
- ▶ 고흥군, 올해 비전5000 품목별 소득왕 15명 선발
- ▶ 보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 장흥군, 삼산간척지에 사료용 벼 심는다
- ▶ 해남군,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 영광군, 수밭아 피해 뱉씨, 반드시 밭아 시험 후 종자로 사용

8. 해외 농업정보 42

- ▶ 농촌진흥청, 중남미 협력사업 확대·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 미국, 콤부차 주류시장으로 한걸음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3. 2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2개월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이후 bargain buying 등으로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세 유입 등으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6%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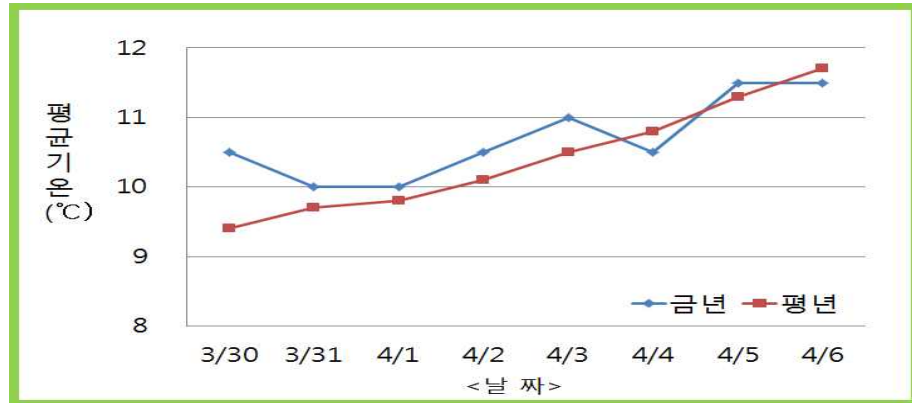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 ▶ 2016년산 쥐눈이콩 등 우량종자 지금 신청하세요
- ▶ 할랄 인증업체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여하세요
- ▶ 해피굿팜 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향상 워크숍 개최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3월 30일~4월 06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10.7℃ (평년대비 0.3℃ 높음)
- 최고기온 : 16.9℃
- 최저기온 : 4.5℃ (평년대비 0.4℃ 낮음)
- 강수량 : 1.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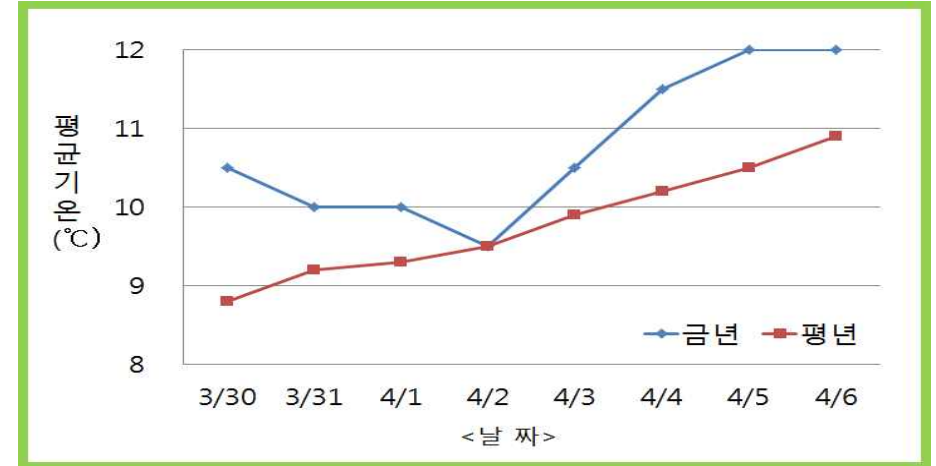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10.7	10.4	0.3	16.9	16.9	0.0	4.5	4.9	-0.4	1.9
3. 30.(목)	10.5	9.4	1.1	17.0	15.7	1.3	4.0	4.2	-0.2	1.6
3. 31.(금)	10.0	9.7	0.3	15.0	16.0	-1.0	5.0	4.4	0.6	2.1
4. 01.(토)	10.0	9.8	0.2	16.0	16.1	-0.1	4.0	4.6	-0.6	2.1
4. 02.(일)	10.5	10.1	0.4	17.0	16.5	0.5	4.0	4.8	-0.8	2.1
4. 03.(월)	11.0	10.5	0.5	16.0	17.1	-1.1	6.0	4.9	1.1	2.1
4. 04.(화)	10.5	10.8	-0.3	16.0	17.4	-1.4	5.0	5.1	-0.1	2.1
4. 05.(수)	11.5	11.3	0.2	19.0	17.8	1.2	4.0	5.5	-1.5	1.7
4. 06.(목)	11.5	11.7	-0.2	19.0	18.4	0.6	4.0	5.8	-1.8	1.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30일~4월 06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10.8℃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15.8℃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5.8℃ (평년대비 0.2℃ 높음)
- 강수량 : 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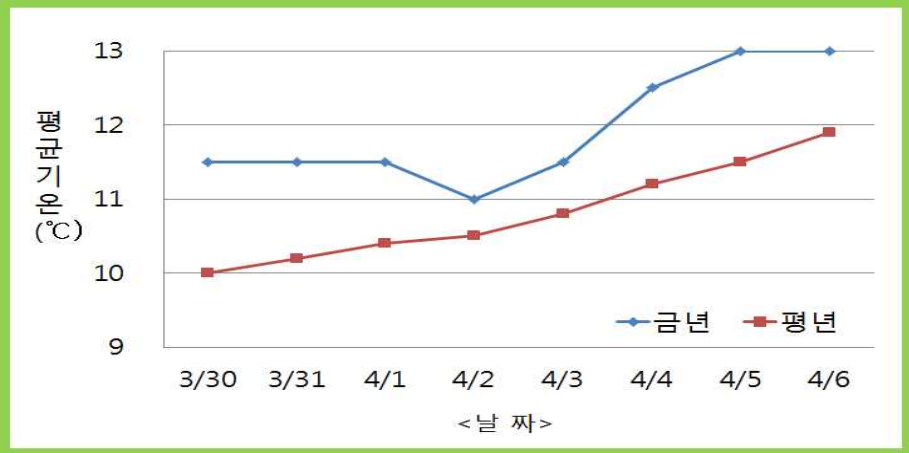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10.8	9.8	1.4	15.8	15.3	0.5	5.8	5.6	0.2	2.0
3. 30.(목)	10.5	8.8	5.0	15.0	14.3	0.7	6.0	4.8	1.2	1.6
3. 31.(금)	10.0	9.2	0.8	15.0	14.7	0.3	5.0	5.1	-0.1	2.0
4. 01.(토)	10.0	9.3	0.7	15.0	14.6	0.4	5.0	5.2	-0.2	2.1
4. 02.(일)	9.5	9.5	0.0	14.0	14.9	-0.9	5.0	5.4	-0.4	2.2
4. 03.(월)	10.5	9.9	0.6	16.0	15.4	0.6	5.0	5.6	-0.6	2.3
4. 04.(화)	11.5	10.2	1.3	17.0	15.7	1.3	6.0	5.9	0.1	2.0
4. 05.(수)	12.0	10.5	1.5	17.0	16.1	0.9	7.0	6.2	0.8	1.8
4. 06.(목)	12.0	10.9	1.1	17.0	16.6	0.4	7.0	6.5	0.5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30일~4월 06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11.9℃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16.3℃ (평년대비 1.1℃ 높음)
- 최저기온 : 7.6℃ (평년대비 0.5℃ 높음)
- 강수량 : 2.9mm



일 별 (월·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11.9	10.8	1.1	16.3	15.1	1.1	7.6	7.2	0.5	2.9
3. 30.(목)	11.5	10.0	1.5	16.0	14.3	1.7	7.0	6.4	0.6	2.6
3. 31.(금)	11.5	10.2	1.3	16.0	14.6	1.4	7.0	6.6	0.4	3.1
4. 01.(토)	11.5	10.4	1.1	16.0	14.8	1.2	7.0	6.7	0.3	3.2
4. 02.(일)	11.0	10.5	0.5	15.0	14.9	0.1	7.0	6.8	0.2	3.2
4. 03.(월)	11.5	10.8	0.7	16.0	15.2	0.8	7.0	7.1	-0.1	3.0
4. 04.(화)	12.5	11.2	1.3	17.0	15.5	1.5	8.0	7.5	0.5	2.9
4. 05.(수)	13.0	11.5	1.5	17.0	15.7	1.3	9.0	7.9	1.1	2.8
4. 06.(목)	13.0	11.9	1.1	17.0	16.1	0.9	9.0	8.3	0.7	2.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 한육우 : 수입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화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과 비슷
 - 6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0.5% 증가) 275만 마리(한우 262만 마리) 전망
 - 4~5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출하대기 물량의 증가로 4~5월 도축은 전년보다 2.7% 내외 증가 전망
 -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약세가 예상되지만, 청탁금지법 이후 수입육 수요 증가로 수입량은 전년보다 6% 내외 증가 전망
 - 4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수요 감소로 약세 전망
 - 공급물량 증가와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4월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전망
- 돼지 : 4월 돼지 지육가격 탕박 kg 당 4,900~5,200원 전망
 - 4월 돼지 지육가격 전년 동월 대비 상승 전망
 - 3월 돼지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1,050~1,070만 마리 추정, 사육 마릿수 증가로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136만 마리 전망
 -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하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4월 돼지 지육 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탕박 기준 kg 당 평균 4,900~5,200원 전망

□ 육계 : 4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kg 당 1,800~2,000원 전망

○ 4월 닭고기 공급량 전년 동월보다 감소 전망

- 병아리 생산 감소로 4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12% 감소한 7,199만 마리 전망
- 냉동 비축물량 전년 대비 7.8% 감소한 1,069만 마리
-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7,500톤 내외 전망

○ HPAI 발생 영향으로 7월까지 병아리 생산량 감소 전망

- 종계 매몰처분 및 입식 제한으로 7월까지 병아리 생산 전년보다 감소 전망
- 8월 이후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수준 회복 추정

○ 4~6월 닭고기 공급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4월 육계 산지가격 kg 당 1,800~2,000원으로 전년보다 상승 전망
- 5~6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kg 당 1,700~1,900원 전망

○ 육계 산지가격 전망치는 HPAI 추가 발생과 닭고기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유기농 홍차 『호주 첫 수출』 개시

- 전남 홍차의 맛과 향기에 세계 차인(茶人)들이 관심 시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차산업 다각화를 위해 5천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차 소비활성화 추진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 2월 22~24일 초청한 호주 블렌딩 차(茶)전문가인 『세린 존스톤』 초청하여 전남산 홍차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 했다.

○ 차 재배 및 가공농가 대상으로 블렌딩홍차 제조 실습을 실시하면서 전남산 홍차(茶)의 우수성에 매료되어 유기농 홍차 20kg의 수출 계약을 제안 하였다.

○ 그동안 호주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3월 20일 전남산 홍차를 제조하는 10여 농가의 제품을 모아 호주로 첫 수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보성제다 서상권 사장은 우리 전남산 홍차의 맛과 향기가 세계 차시장에 진출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고품질 홍차 만들기에 더 노력하여 기필코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나라에 수출이 확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차산업연구소 박장현 소장은 “앞으로 전남산 유기농 고품질 홍차 공동생산을 위해 제조기술 및 제다시설을 지원하여 수출 시장이 확대 되도록 차 농가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산 천연정유 수출 업무협약 체결로 해외 수출 길 나서

- 기술이전 한 도내 기업체, 농업인단체, 해외판매 업체와 정유수출 업무협약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에서 특히 기술이전 한 도내 기업체와 농업인단체, 해외판매 업체인 바이오제닉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천연정유 수출 업무협약을 3월 23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은 그 동안 천연정유생산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향성 수증기증류장치 등 특허기술을 도내 농업인단체, 기업체 등에 꾸준히 기술이전 한 결과 천연정유와 방향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체가 8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기술이전 기업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기술이전 한 기업체에서 생산한 유자·편백·쑥 등의 천연정유가 지속적으로 생산·판매되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이나 제약회사에서 제2의 원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천연향료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전남은 천연향료 생산 전문단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박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천연자원 및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향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품목의 국산향료를 늘려 기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며 이러한 기술개발은 농업인의 원재료생산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향료 생산업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수입 없어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 식품공급부는 3.20.(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하였다.
- 동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유럽연합·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3월 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17. 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3. 2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7)	1주일전 (03/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재료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2,133	↓ 12.2	↓ 24.5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59,187	↑ 14.7	↑ 8.0
	고구마(밤)	10kg	26,000	26,000	25,920	26,800	26,227	↓ 3.0	↓ 0.9
	감자(수미)	20kg	34,400	34,800	35,400	30,800	27,987	↑ 11.7	↑ 22.9
	배추(월동)	1kg	990	950	1,008	1,265	890	↓ 21.7	↑ 11.2
채소류	양배추	10kg	9,800	11,400	13,320	7,575	6,810	↑ 29.4	↑ 43.9
	오이(다다기계통)	10kg	20,333	25,667	27,867	28,667	29,833	↓ 29.1	↓ 31.8
	애호박	8kg	15,800	16,600	23,200	22,250	21,817	↓ 29.0	↓ 27.6
	건고추(화건)	60kg	570,000	570,000	560,000	756,000	822,667	↓ 24.6	↓ 30.7
	풋고추	10kg	48,400	47,000	63,440	46,500	53,857	↑ 4.1	↓ 10.1
	마늘(깐마늘)	20kg	142,000	142,000	146,000	163,000	118,187	↓ 12.9	↑ 20.1
	양파	20kg	27,800	27,000	26,840	31,850	19,206	↓ 12.7	↑ 44.7
	당근	20kg	35,600	37,600	47,480	24,800	23,200	↑ 43.5	↑ 53.4
	대파	1kg	2,700	2,680	2,732	2,450	1,742	↑ 10.2	↑ 55.0
	파프리카	5kg	22,400	24,200	32,840	25,250	29,960	↓ 11.3	↓ 25.2
	달기	1kg	7,600	7,100	8,580	8,700	8,700	↓ 12.6	↓ 12.6
	토마토	10kg	29,600	30,000	34,600	36,600	35,533	↓ 19.1	↓ 16.7
	방울토마토	5kg	20,400	21,200	23,040	26,250	27,080	↓ 22.3	↓ 24.7
	수박	1개	17,800	17,400	18,960	18,500	16,807	↓ 3.8	↑ 5.9
	과류	사과(후지)	10kg	38,400	38,400	38,680	37,000	48,049	↑ 3.8
배(신고)		15kg	41,000	41,000	38,760	44,000	44,040	↓ 6.8	↓ 6.9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7)	1주일전 (03/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9,000	550,400	↓ 1.9	↓ 5.7
	느타리버섯	2kg	12,200	12,400	10,200	11,750	12,283	↑ 3.8	↓ 0.7
	새송이버섯	2kg	8,100	8,100	8,000	8,650	8,700	↓ 6.4	↓ 6.9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54	7,826	7,779	8,109	6,324	↓ 3.1	↑ 24.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13	2,029	1,918	1,904	1,774	↑ 5.7	↑ 13.5
	닭고기	1kg	5,565	5,681	5,464	5,638	5,980	↓ 1.3	↓ 6.9
	계란(특란)	30개	7,372	7,299	7,480	5,369	5,517	↑ 37.3	↑ 33.6
	우유	1리터	2,529	2,529	2,529	2,549	2,475	↓ 0.8	↑ 2.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3. 2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17 천원	5,540 천원	5,839 천원	↓ 2.2	↓ 7.2
	거세	5,948 "	5,772 "	6,949 "	↑ 3.0	↓ 14.4
송아지 (6~7월)	암	2,826 "	2,824 "	2,847 "	↑ 0.1	↓ 0.7
	수	3,326 "	3,398 "	3,415 "	↓ 2.1	↓ 2.6
육우(600kg)	2,872 "	2,574 "	3,693 "	↑ 11.6	↓ 22.2	
젖소수송아지(7일령)	168 "	168 "	236 "	- 0	↓ 28.8	
돼지(110kg)	368 "	377 "	349 "	↓ 2.4	↑ 5.4	
육계(원/kg)	1,784 원	1,982 원	1,373 원	↓ 10.0	↑ 29.9	
계란(원/특란10개)	1,832 "	1,747 "	917 "	↑ 4.9	↑ 99.8	
오리(원/kg)	2,500 "	2,500 "	1,667 "	-	↑ 50.0	

※ 한우(거세우) : 6,652천원/마리(△704)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326)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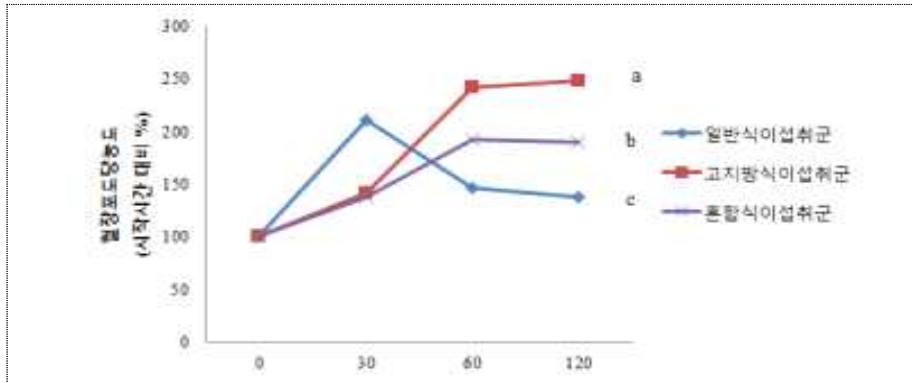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비파잎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 정보제공

□ 개발기술 내용

- 제 2형 당뇨병 모델동물을 이용한 비파잎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
 - 고지방 식이와 1% 비파잎 추출물 혼합 사료를 먹은 쥐가 고지방 식이만 먹은 쥐보다 혈당이 47% 낮아짐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비파잎의 항당뇨 효과 홍보에 따른 생산농가 재배 확대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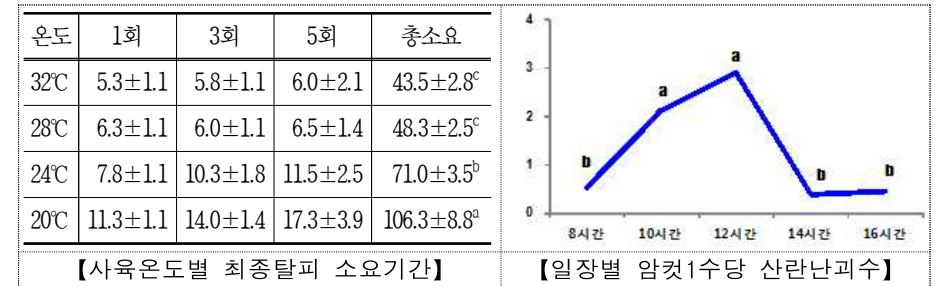
-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당뇨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소재발굴로 비파잎의 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박문영

■ 벼메뚜기 실내사육에 알맞은 온도와 일장

□ 개발기술 내용

- 벼메뚜기 실내사육에 알맞은 온도와 일장
 - 벼메뚜기 대량생산을 위한 실내사육 온도는 28℃가 알맞으며, 일장 시간은 LED 백색광 15W에서 10~12시간이 알맞음



【사육온도별 최종탈피 소요기간】

【일장별 암컷1수당 산란난괴수】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2015년 사육 희망농가 중심 농가실증 사업 : 2농가
- 시범 사육농가 컨설팅 및 실내사육 기술지원
- 벼메뚜기 사육농가와 대량 소비처 연결통로 구축 소비확대

□ 기술개발 파급효과

- 기존 연 1회 사육 → 연 4회 이상 사육
- 연 4회 사육 시 연 1회 노지생산 대비 165㎡당 10.6백만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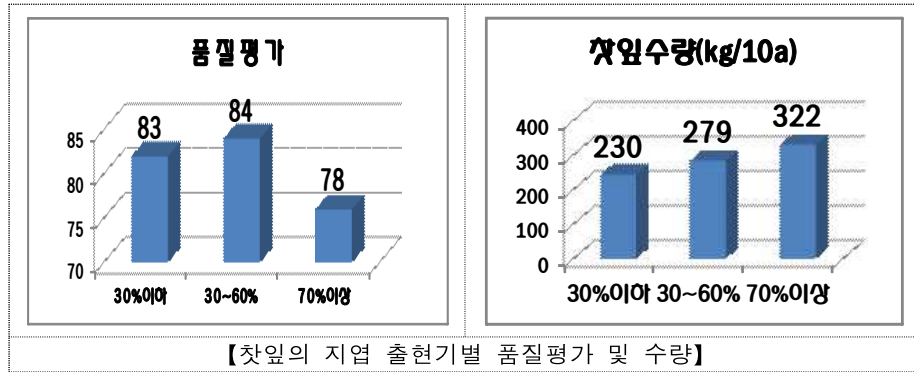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강성주

■ 기계 수확 시 최적 찻잎 생육시기

□ 개발기술 내용

○ 찻잎 기계수확에 적당한 찻잎 생육 시기

- 찻잎 새순의 마지막 5엽이 전체 차발의 30~60% 출현 시 기계수확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차나무 재배농가 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 활용

- 찻잎 기계수확 할 때 양질 찻잎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시기 홍보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찻잎 기계수확 시 최적의 새순 생육시기 (찻잎지엽 30~60% 출현)

○ 찻잎 기계수확 시 양질 찻잎 생산과 비용절약 (품질 84, 1,772천원/1h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 참다래 신품종 『해금』 골드키위 수익성

□ 개발기술 내용

○ 참다래 신품종 『해금』 골드키위 수익성

(기준 : 년/10a)

구분		해금(a)	헤이워드(b)	a/b(%)
수량(kg)		3,289	2,196	150
단 가		3,750	2,534	148
조 수 입		12,376,448	5,717,985	216
비용	중간재비	1,079,882	1,079,441	100
	경영비	1,759,576	1,368,394	129
	생산비	1kg당	1,715	2,056
10a당		5,638,980	4,515,018	125
수익	부가가치	10,978,160	4,710,213	233
	소득	10,616,872	4,349,591	244
	순이익	6,737,467	1,202,968	560
노동투입시간		258	165	157
생산성	노동생산성(원/시간)	42,486	28,624	148
	토지생산성(원/평)	36,594	15,701	233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해금』 골드키위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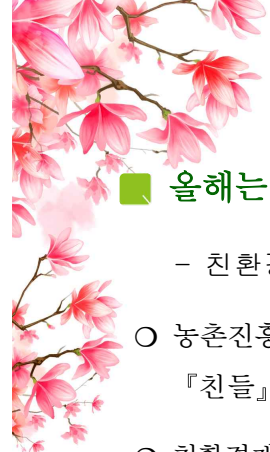
○ 『해금』 골드키위 재배기술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참다래 신품종 『해금』 재배 시 헤이워드에 비해 수량이 50% 증수되고, 판매단가가 48% 증가하여 조수입이 116% 증가

○ 『해금』 골드키위 재배 시 가지고르기, 눈따기, 열매숙기 등 노동시간 증가로 헤이워드에 비해 경영비가 29% 증가하나 소득은 144%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조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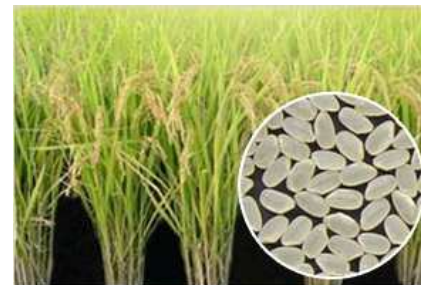
■ 전남농기원, 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 농가기록 데이터 활용 컨설팅으로 경영상 문제점 쉽게 찾아 해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3월 21일 농업기술원에서 배 재배농가 15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깨동무 컨설팅』 결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어깨동무 컨설팅』은 2016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컨설팅 기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컨설팅이다. 어깨동무 컨설팅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과 전문가가 경영기록 분석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 배 어깨동무 컨설팅을 시작으로 5월에 토마토, 6월 사과, 8월 참다래, 11월 딸기를 작목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어깨동무 컨설팅은 참여농가 소통을 위한 어깨동무 의식을 시작으로 경영기록장 서로 둘러보기, 경영기록장 기록수준 평가, 수익성 및 생산비 등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배 어깨동무 컨설팅에 참여한 나주시 문재모 대표는 “경영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본인 농장의 경영수준과 경영상의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앞으로 정밀한 경영분석을 위해 경영기록장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과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올해는 밥맛 좋은 친환경 벼 심어보세요!

- 친환경재배적용 벼 품종 『해품』·『친들』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친환경재배에 적합한 벼 품종 『해품』·『친들』을 소개했다.
- 친환경재배적용 벼 품종은 병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일반 벼를 심었을 때 발생하는 농약비(전체 경영비 중 5.7% 절감효과)와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농가에 유리하다.
- 또한 친환경농업의 국가 경제적 가치는 토양·물 관련,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에 대해 연간 2조 8,817억원으로 추정된다.
- 벼 병해충 발생은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저항성 품종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현상으로 친환경재배단지에서 벼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는데, 남서해안가를 중심으로 벼 흰잎마름병과 벼멸구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해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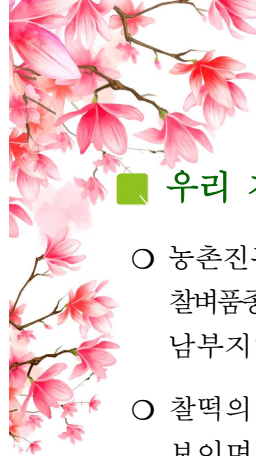


【친들】



- 『해품』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으로 밥맛이 뛰어난 최고품질 벼다.
- 『해품』을 2013년 벼흰잎마름병 발병상습지인 전남 장흥에서 재배한 결과 매우 뛰어난 저항성을 보였으며, 당시 현장평가회에 참석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재배면적이 2014년 39ha에서 2016년 2,331ha로 크게 증가했다.
- 『친들』은 도열병,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뿐만 아니라, 벼멸구에도 강한 복합내병충성 품종으로 밥맛 또한 매우 우수하다.
- 『친들』의 수량성은 561kg/10ha로 안정적이며 친환경재배 벼에 적합한 품종이라는 입소문 덕분에 2014년 4ha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842ha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533ha로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김보경 작물육종과장은 “앞으로도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밥맛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한 친환경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우리 지역에 찰떡궁합인 찰벼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산 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별 찰떡용 찰벼품종으로 중북부지역은 『청백찰』, 중부지역은 『동진찰』, 『백옥찰』, 남부지역은 『백설찰』과 『아랑향찰』을 추천했다.
- 찰떡의 원료인 찰쌀은 멥쌀에 비해 겉모양이 뽀얗고 불투명하게 보이며, 거의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차진 성질을 나타내고 굳는 속도가 느리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3지역(중북부, 중부, 남부)에서 생산한 찰벼 15 품종으로 찰떡을 만들어 굳어지는 정도를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찰떡의 굳기 정도(경도)는 품종과 산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중북부지역에서 생산한 조생종 찰벼 4품종의 찰떡 굳기 지연 정도를 확인한 결과, 『청백찰』이 가장 우수했다. 중부지역은 중만생종 찰벼 『동진찰』, 『백옥찰』이 찰떡을 제조한 뒤에도 잘 굳지 않아 찰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 남부지역 적응 찰벼 품종으로는 『백설찰』과 『아랑향찰』로 제조한 찰떡이 찰기가 좋고 품질이 오래 유지되는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 국립식량과학원이 추천한 지역별 적합 찰벼품종은 찰떡으로 만들었을 때 질감이 좋고, 시간이 지나도 굳기 정도가 지연되는 효과가 우수하다. 또한 수량성과 품질 면에서도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 찰벼 재배 농가에서 참고하기에 적합하다.
- 『청백찰』, 『동진찰』, 『백옥찰』, 『아랑향찰』은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백설찰』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에 문의(☎063-238-5362)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천궁·당귀 재배 전에 안전 재배지인지 확인하세요

- 천궁·당귀 기후에 맞는 재배적지 정보 제공 -

- 최근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국산 약용작물 천궁·당귀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후에 민감한 이들 약초를 재배하기 전 반드시 안전 재배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작물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천궁·당귀를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웹서비스(www.agdcm.kr) 정보를 제시했다.
- 천궁·당귀는 여름철 기온이 28~30℃ 이상 지속되면 생육이 크게 부진하고 말라죽는 등 고온에 약한 작물이다. 해마다 기후부적지에 재배해 실패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재배 적정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는 천궁·당귀의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개발해 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제공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작물이나 지역의 주소를 조회하면 해당 지역의 저위 생산지 여부와 재배 가능여부, 재배 적합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저위 생산지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재배 가능지는 기후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위험도가 있어 여름철 고온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관수나 해가림 등 재배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재배 적합지는 기후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천궁의 경우 기후에 워낙 민감해 기상이변이 심한 해에는 재배 적합지에서도 피해가 있어 물 관리 등에 신경 써야 한다.
- 현재 천궁의 주산지는 경북 영양지역이고, 당귀의 주산지는 강원 평창지역이다.
- 필지별 기후를 조회하면 지역별로 월별 평년(1981~2010년)의 평균·최고·최저 기온 및 강수량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내려 받아 활용하면 된다.
- 이 서비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조건에서 재배적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별 농업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자료기간』을 선택하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재배적지 변동에 대한 예측결과를 볼 수 있다.
- 장기적으로 기후 온난화가 지속되면 천궁·당귀의 재배 적합지는 더 서늘한 북쪽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해당지역의 미래 기후가 작목재배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천궁과 당귀는 여성을 위한 주요 처방인 사물탕의 재료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각종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김용일 농업연구사는 “천궁과 당귀는 기후에 워낙 민감해 월평균 온도가 생육 적정온도 대비 1~2℃만 올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재배 적합지인지를 꼭 확인하고 관수 등을 철저히 관리해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방제가 필수

- 배 꽃피기 전, 사과 새가지가 나오기 전에 약제 뿌려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고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을 이용해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국 사과·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 약제를 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을 물과 섞어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과수원에 뿌려준다.
- 사과 과수원은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은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릴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뒤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한 뒤,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사전 방제 실천과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2015년 59.9ha였던 방제(매몰) 규모가 2016년 19.7ha로 67%가량 줄었다.
- 배 과수원의 경우 월동기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해야 하며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4월 상순에 실시한다.
- 단, 지역별로 기상상황에 따른 과수나무 생육의 차이가 있어 방제 시기가 다르므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시기에 맞춰 방제하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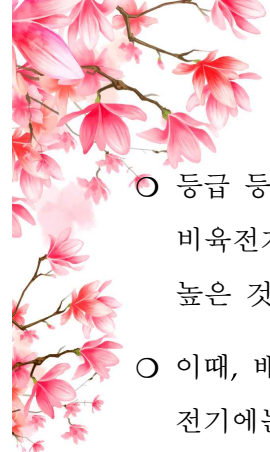
■ 양파 노균병 제때 방제해야 풍년 농사 가능

- 4월 초부터 3회 방제, 지금부터 방제 계획 세워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양파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려면 적기에 양파 노균병을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양파 노균병은 크게 1차와 2차 노균병으로 구분하는데, 1차 노균병은 월동 전 모종을 기르는 동안이나 본밭에서 감염돼 이듬해 2~3월에 발생하고, 2차 노균병은 4월에 주로 발생한다.
- 양파 노균병균은 이미 월동한 양파 잎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월동 뒤 노균병 방제용 살균제를 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2차 노균병은 주로 4월 중·하순부터 잎에 얼룩병반이 발생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월동기 이후 적기에 약제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파 노균병 포자는 2~3월 5일 간의 평균 기온이 8~10℃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다가 4월 상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4월 상순 첫 방제를 시작으로 7일 간격으로 3회 방제 시 이병주율 1.3, 포자발생주율 0.01, 이병엽률 8.4%로 나타났다. 이는 무방제 시 이병주율 31.3, 포자발생주율 17.4, 이병엽률 51.6% 보다 효과적이었다.
- 약제 처리시기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4월 하순 이후 늦게 방제할 경우에는 방제 효과가 낮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생산비 줄이는 한우 방목 기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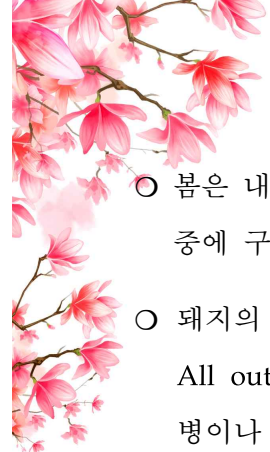
- 16개월까지 방목 뒤 일반 사양하면 경제성 가장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늘어나는 한우 사료비를 줄이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에 있는 초지(산간초지)에서 방목 시험한 결과를 제시했다.
- 한우 사육농가의 거세우 평균 출하월령은 31.2개월로 사료비 부담이 크다.
-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산간초지 방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목은 육질과 육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체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연구는 산간초지 방목에서도 거세 한우의 육질과 육량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 한우 거세우 31마리를 대상으로 일반사양과 방목을 실시한 뒤, 같은 체중과 월령에서 도축해 경영비와 등급성적을 비교했다.
- 그 결과, 생후 8개월에서 생후 16개월령(비육전기)까지 방목을 하고 30개월까지 비육했을 때 사료비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것(1마리당 792,300원 절감)으로 나타났다.
- 생후 8~12개월령(육성기)동안 방목한 경우에는 1마리당 649,108원을 줄일 수 있었으며, 방목으로 인해 줄어든 육량과 육질 회복을 위해 생후 16개월령까지 방목하고 31개월까지 비육한 경우에는 1마리당 629,400원을 절감했다.

- 등급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결과에서도, 한우 거세우는 비육전기까지 방목한 뒤 30개월까지 비육했을 때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때, 배합사료(농후사료)는 육성기 동안 1.80kg(1일, 1마리), 비육 전기에는 3.85kg(1일, 1마리)을 먹이고, 목초는 자유롭게 먹인다. 17개월령부터는 일반사양과 동일하게 배합사료 9.20kg(1일, 1마리)을 급여하고 볏짚을 자유롭게 주면 된다.
-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은 관리 인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들이 연한 풀을 섭취함으로써 단백질·무기물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돼지 생산성 높이는 봄철 온도·습도 관리요령

- 단열 시설물은 환절기 지난 뒤 제거... 습도는 60~70%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봄을 맞아 건강한 돼지를 키우기 위한 맞춤형 돼지 사양과 돈사(우리)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 일교차가 10℃ 이상 나고 건조한 환절기에는 돼지 항상성이 떨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생체대사 기능과 면역체계 기능이 낮아진다. 또한 호흡기 질병 발병이 늘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돼지의 성장단계에 맞게 돈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단열 시설물은 환절기(3~5월)가 지난 뒤 제거하는 편이 좋다.
- 젖먹이 새끼돼지의 사육온도는 27~32℃ 내외로, 젖을 떼면 약 25℃ 내외로 맞춘다.
- 또한, 돼지 상태와 돼지가 활동하는 높이에서 1일 3회 이상 온도를 확인해 셋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 환기는 일교차에 따라 아침에는 온도편차를 줄이고, 저녁에는 온도편차를 높여 내부 환경을 조정한다.
- 낮에는 빠르게 환기량을 높여 내부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밤에는 환기량을 줄여 내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 내부 습도는 60~70% 수준으로 관리하고, 외부 공기가 내부의 공기와 적절하게 섞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임신한 돼지는 겨우내 약간씩 늘렸던 사료량을 정상적인 양으로 조절한다. 허약한 어미돼지는 영양제를 보충하는 등 봄부터 체형 관리를 해줘야 여름철 수태율을 높일 수 있다.

- 봄은 내·외부 구충에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수의사와 상의해 4월 중에 구충과 일본뇌염백신을 실시한다.
- 돼지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동시입식과 동시출하(All in and All out System) 같은 적절한 사양관리 기술을 도입해 살모넬라 병이나 돼지회충증과 같은 상재균에 의한 감염을 차단한다.
- 날씨가 쾌적한 날에는 돈사 내부를 물청소해 겨우내 쌓인 먼지와 각종 병원성 세균의 농도를 낮추고, 슬러리(분뇨혼합액)는 깨끗하게 비워 쾌적한 사육환경을 만든다.
- 농촌진흥청 양돈과 김두완 농업연구사는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돼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인 5월까지의 차단방역과 주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 농장의 생산성 낮추는 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도, AI 피해농가에 특별 운영자금 긴급 지원

- 녹색축산육성기금 활용 88농가에 16억원 -

-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입식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 사육농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을 활용, 사료 구매 등 특별운영자금으로 88농가에게 1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특별운영자금은 농가당 2천만원 이내다. 연 1% 저리로 가축 입식의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 깔짚 구입 등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겪는 농가들에 가축 입식비, 깔짚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9개 시군 3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09농가 2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935농가가 입식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110억원과 생계안정자금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산 농·수·특산물 판매 카카오가 나선다

- 전남도, 전남지방우정청 등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업무협약 -

- 전라남도는 23일 카카오 판교오피스 회의실에서 ㈜카카오(임지훈 대표이사), 전남지방우정청(김성철 청장)과 전남산 농·수·특산물과 6차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전남 농·수·특산물 및 6차산업 제품을 판매한다.
- 특히 전라남도와 ㈜카카오, 전남지방우정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카카오선물하기(카카오파머) 입점을 시작으로 공동상품 개발, 공동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 또한 전라남도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지속적 성장세에 대응해 농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판매 진입단계의 농업인 대상 정보화 기초교육을 강화하면서, 이미 온라인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미지 편집 활용, 홍보 동영상 제작 등 『e 쇼핑몰·마케팅교육』(7과정, 200명)을 확대한다.
- 다양하게 진화 발전하는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상품기획, 상세페이지 작성 등 『온라인 판매 전문가』를 육성하고 온라인 판매로 성공한 현장 농업인을 강사로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 출처 : 전라남도

◆ 내년부터 연간 460억원 규모 (쌀 5만톤) 식량원조 추진키로

- 정부는 3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연내 가입을 통해 내년(2018년)부터 460억원 규모(쌀 5만톤)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식량원조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EU·캐나다·일본·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동 협약에 우리나라가 연간 460억원(약 40백만달러) 공여를 약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EU·캐나다·일본·호주에 이어 협약 가입국 중 6위 공여국이 된다.
-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에서, 전쟁·자연재해 증가와 신종전염병 창궐 등으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문제 완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등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201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교육·홍보 실시 -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홍보와,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에 나선다.
-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이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써, 잔류허용 수치를 0.01mg/kg(ppm)으로 적용한다.
- 쉽게 말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일률적 수치(0.01ppm)가 적용된다.
- 우선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땅콩·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참깨·들깨 등)에 대해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농산물 전체의 경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방침이어서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등록된 농약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잔류농약 0.05ppm 이상이 검출되는 경우 때문이다.
- 따라서 농가들은 농약 사용지침서 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만 해당 작물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매실 등 지역 특산물 맞춤형 통계 개발에 나서

- 광양시와 호남지방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조사 결과 타 지자체에 보급 -
- 광양시는 3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통해 광양시는 행정자료 공유, 매뉴얼 작성,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며, 호남지방통계청은 특산물 실태조사 통계 개발과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는 시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단감·뽕은 감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3월 사전 준비 후 7~8월에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조사결과는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로 작성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 김명덕 문서통계팀장은 “그동안 국가통계는 전국단위로 생산되어 종합적이고 개괄적으로만 활용됐지만, 이번 지역통계 개발로 시에 맞춤형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시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지역통계 개발 사업은 통계청, 행자부,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단위 조사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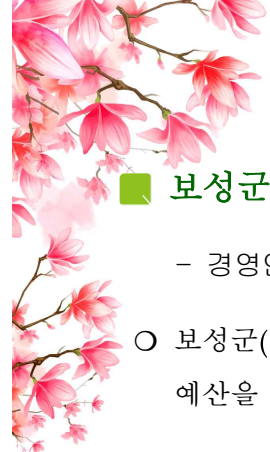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소(通)동(行)락(樂) 곡성 귀농학교 구들농기 교육

- 곡성군은 오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소(通)동(行)락(樂) 곡성 귀농학교 구들농기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과정은 귀농·귀촌인의 희망에 따라 개설한 과정이며, 구들은 『구운 돌』이란 의미를 가진 우리말로 봄, 가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 군에서는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지난해 403세대 819명, 올해 2월말까지 66세대 121명이 귀농·귀촌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처음으로 시작하는 구들농기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다.
- 구들농기 과정 교육은 건축 전문자격을 갖추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25명이 신청하여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쌓고 고래, 아궁이, 굴뚝 등을 직접 만드는 현장 실습 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현재 교육장 기반시설 다지기와 기초 벽돌 쌓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에 벽돌쌓기, 미장, 아궁이에 불 지피기 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 군 관계자는 “은퇴 후에 농촌에 내려와 농사짓고 생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한 구들농기 교육 등 빠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곡성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올해 비전5000 품목별 소득왕 15명 선발

- 고흥군은 3월 14일 『비전5000 품목별 소득왕 선정위원회』를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소득왕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 군은 2016년 기준 소득조사와 비전5000 프로젝트 군 5개 핵심 부서 및 16개 읍면에서 추천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농·어업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소득왕 농업분야에서는 △쌀 송효수 씨(두원) △유자 이효진 씨(영남) △참다래 장일근 씨(도덕) △하나봉 송기운 씨(도화) △시설채소 송하은 씨(대서) △축산분야 한우 송유중 씨(대서)가 선정됐다.
- 아울러, 수산분야에서는 △어선어업 강현동 씨(점암) △수산가공 김재만 씨(풍양) △전복양식 정승호 씨(금산) △패류양식 박형근 씨(도양) △김양식 김정수 씨(도화) △미역양식 김정식 씨(풍양) △매생이 김동주 씨(금산) △새고막 문순오 씨(과역) △임업분야에서는 산채류에 김공식 씨(도화)가 소득왕으로 선발되었다.
- 군은 품목별 소득왕 최종 선발자에 대해서 오는 7월경에 개최 예정인 『고소득 농어업인 인증패·수출탑 수여식』에서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어업인에게 주는 다이아몬드 및 골드클럽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16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고소득클럽 멘토링제』의 활동 멘토로서 『품목별 소득왕』만의 경영·영농 노하우를 전파하여 더 많은 고소득 농가를 육성하는 등 다함께 잘 사는 고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에 크게 기여 -
- 보성군(이용부 군수)은 올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에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에 나선다.
- 벼를 포함한 53개 품목이 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배·단감·뽕은감·사과 등 과실수는 4월 14일까지, 벼·밤·대추·고추·버섯 재배사는 4월말까지, 복숭아·포도·자두·매실·양파·인삼은 11월 말까지, 원예시설(작물포함)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태풍이나 집중호우, 우박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짐승피해,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받은 농가는 총 2,337농가로 11억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
- 품목별로는 벼 2,268농가 6억원, 배 26농가 1억원, 참다래 6농가 9천만원, 원예시설 18농가 7천만원 등이다.
- 이용부 보성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안정에 필수적이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출처 : 보성군





장흥군, 삼산간척지에 사료용 벼 심는다

- 장흥군은 23일 관산농협에서 삼산간척지 경작농가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사료용 벼 재배 사례와 안정적 생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삼산간척지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 동안 조성한 신규 간척지로 총 420ha 규모를 자랑한다.
-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금년부터 2년간 삼산간척지에 80ha의 면적을 대상으로 『간척지 활용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항공과중 재배기술 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전작물로 『사료용 총채벼』를 재배할 계획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재권 연구관을 초청하여 사료용 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에서는 간척지 경작 시 가장 큰 문제점인 『염류 집적 개선방안』과 『영우벼』 등 농촌진흥청 개발 사료용 벼 재배에 대한 실천기술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염류 집적의 개선방안으로 삼산간척지에 사료용 벼를 재배하고, 이후 월동 사료작물 이탈리아라이그라스를 항공과중하여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제해신 장흥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겨울철 동계 사료작물 재배에 앞서 전작물로 사료용 벼를 재배하여 가축사료로 이용토록 하는데 교육의 의의 두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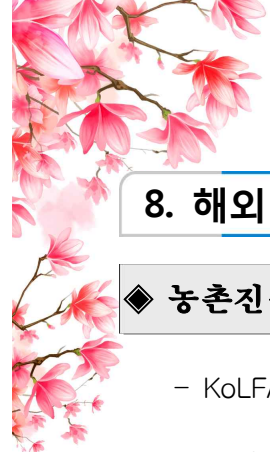
* 출처 : 장흥군

해남군,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해남군이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지도 강화에 나섰다.
- 군은 등화장치가 노후화 되는 등 야간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불빛에도 쉽게 반응하는 고휘도 야광반사지 850매와 농기계 등화장치 65세트를 지원한다.
- 또한 읍·면 공동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와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농업인에게 농약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있도록 방제복과 개량마스크, 보안경 등으로 구성된 방제장비 1,900세트를 공급한다.
-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총 2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일반 I 유형을 기준으로 총 10만 8,500원의 보험료 중 농업인이 2만 1,7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80%를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 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사용자인 농업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기계 파손 등 재산손실도 크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출처 : 해남군





■ 영광군, 수발아 피해 별씨, 반드시 발아 시험 후 종자로 사용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못자리철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수발아 피해로 인하여 벼 발아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군은 농업인들이 보유한 별씨의 발아율 실험결과 총 218건 중 발아율이 비교적 정상인 81%이상이 45%,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한 71~80%가 27%, 종자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이 28%로 나타났다.
- 품종별로는 수발아에 약했던 신동진·수안벼 등이 발아율이 낮았으며 비교적 삼광·일미벼 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별씨 발아율이 낮을 경우 생육 불균일 및 입모 불량으로 정상적인 육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발아되지 않은 종자가 육묘상자 내에서 썩어 모썩음병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게 종자발아시험을 적극 권장하여 발아율이 75% 이상 되는 별씨는 육묘상자 늘리거나, 발아 정도에 따라 파종량을 10~20% 늘려 파종하되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발아율 시험은 접시에 휴지를 두텁게 깔고 벼를 파종한 다음 따뜻한 곳에 두고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4~5일 정도 관리하면 된다.

* 출처 : 영광군

8. 해외 농업정보

◆ 농촌진흥청, 중남미 협력사업 확대·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KoLFACI 신규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및 CATIE와 공동사업 추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0일(현지 일자)부터 21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이하 KoLFACI) 신규과제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2014년 9월 중남미와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KoLFACI를 출범하고, 중남미 12나라와 3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이번 착수보고회는 2017년부터 새롭게 추가하는 2사업에 대한 것으로 『중남미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관리 선진화 모델 구축(8나라 참여)』 과 『중남미 토양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7나라 참여)』 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 KoLFACI 회원나라들은 지난 기획회의(2016년 9월)와 총회(2016년 11월)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남미의 농업 현안문제로 토양 정보와 수확 후 관리를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기술협력을 요청하면서 신규과제로 추진하게 됐다.
- 토양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작물재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중남미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기술이 없으며, 원예작물에 대한 수확 후 관리 부족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이번 신규과제 추진을 통해 중남미 회원나라들의 토양환경에 대한 분석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예작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전문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제책임자들이 나라별 농업현황과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하며 회원나라 간 정보를 나누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적 조언과 더불어 사업수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 착수보고회에 앞서 17일에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CATIE(열대농업 연구교육센터)를 방문해 중남미 소농의 대표 작물인 카카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 서명식을 가졌다.

※ CATIE(Tropical Agricultural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Center) :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 현지 소농들은 카카오 재배 등에 관한 전문기술의 보급을 원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없어 제대로 기술전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KoLFACI와 국제기구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 소농에 대한 전문기술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미국, 콤부차 주류시장으로 한걸음

- 콤부차(Kombucha)가 건강에 좋은 음료라는 것은 많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제품의 강한 맛과 향,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목 넘김은 콤부차의 주류시장으로의 진출을 막는 장애요소였다.
- 이러한 가운데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한 기업이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콤부차를 소개하고 판매하고자 현지화 전략을 적용한 콤부차를 선보여 화제다.
- 이 회사는 미국인에게 친숙한 맥주병 모양의 유리병에 제품을 담아 기존 콤부차 용기와는 차별화 된 모습을 보였으며 주류 소비자들을 위한 녹차 콤부차를 제조하여 콤부차의 강한 식초맛과 향을 줄여내는데 성공하여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를 주었다.
- 더불어, 기존 콤부차와는 달리 2차 발효를 위한 설탕을 제품에 넣지 않고 유기농 주스를 첨가하여 완제품의 설탕을 줄였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는데 성공하였다.
- 이는 제품의 설탕 양에 대해서 예민한 소비자들이 많은 미국의 시장상황에 알맞은 선택이었다.
- 음료의 목넘김을 위해서는 맥주 양조법을 참고하여 잔여물을 제거해 기존의 콤부차가 가진 목넘김을 없애는데 성공하였는데 전통적인 콤부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제외하고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미국의 콤부차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펍시콜라는 콤부차 브랜드 중 하나인 Ke-Vita를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의 콤부차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3. 27.(시카고 선물거래소)

□ 최저점 회복 이후 새로운 뉴스의 부재로 밀 가격 혼조세

○ 밀 선물시장 시황(▲0.8%)

- 밀 선물 가격은 2개월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이후 bargain buying 등으로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하였음. 그러나 미국 평야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상승은 제한되었고 대두와 옥수수의 약세 또한 밀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1%)

-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세 유입 등으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미 농무성(USDA)의 파종 계획 및 분기별 재고량 발표에 앞서 옥수수 가격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음. 남미의 풍작 전망으로 사료 곡물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직면하면서 옥수수 또한 하락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시황(▼1.6%)

- 대두 선물 가격은 목요일의 하락세 이후 기술적 시그널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1.6% 하락하였음. 대두 가격은 부셸 당 9.83달러까지 하락하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산 쥐눈이콩 등 우량종자 지금 신청하세요

- 팥·녹두·참깨 등 9품종 1,298kg, 4월 7일까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쥐눈이콩·녹두·팥·참깨 등 하계 발작물인 우량종자 1,298kg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4월 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 올해 보급되는 품종은 병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좋아 농가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쥐눈이콩·다현녹두·충주팥·건백참깨·다유들깨와 삼다찰조·황금수수·상강울무·황금기장 등 기능성 잡곡종자를 kg단위로 분양한다.

○ 분양가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가격과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도매시장 가격을 감안하여 가급적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 분양일정은 3월말까지 시군별로 분양 신청을 받아 4월중에 분양량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 종자관리소 홍석봉 소장은 “종자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며 이번에 분양하는 쥐눈이콩과 녹두·팥·잡곡류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우량종자로 지금까지 종자확보를 하지 못했거나 종자갱신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우량종자를 신청해 주길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할랄 인증업체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여하세요

- 전남도, 4월 3일까지 접수... 5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파견 -

- 전라남도는 할랄 인증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4월 3일까지 동남아 3개국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오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자사 제품에 대해 1대 1 방문 상담 활동을 펼친다.
- 이번 할랄 인증기업의 시장개척단 파견은 할랄식품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할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 전남에 소재한 할랄 인증 농수산물 업체로써 자사제품에 대한 영어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 가진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 현지 바이어 발굴은 한국무역협회 현지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참가 기업은 바이어 발굴 부담이 줄어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다.
- 시장개척단은 10개 업체 내외로 구성되며, 업체 선정은 현지 시장성과 수출 능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항공료 5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기업은 잔여 항공료와 숙박비만 부담하면 된다.
-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에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해피굿팜 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향상 워크숍 개최

- 전남 온라인 거래 농업인 115명 참석, 모바일 직거래 기술 습득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모바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2일간 보성다비치 콘도에서 해피굿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마케팅 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은 전남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115명이 참석하여,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 모바일 직거래 판매전략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기술을 실시하였다.
- 해피굿팜 농업인들은 그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농업인들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직거래를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해피굿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쇼핑몰을 제작해 줄 계획이다.
- 『해피굿팜』이란 쇼핑몰은 농업인들의 온라인 직거래 및 농장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종합쇼핑몰로, 해피굿팜 농업인들의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350여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 또한, 농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라보 코리아에서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하는 모바일 앱(APP)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 해피굿팜 농업인들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구매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업기술원은 도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하는 경영체를 육성”하면서 “농식품을 편리하고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모바일 직거래 및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